

김동철 4선 도전에 더민주 전략공천설 ‘모락모락’

■ 누가 뭐냐

아권 재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광주 광산 갑은 이번 4·13 총선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다.

지역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긴 현역 의원을 탈락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인물을 뽑을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광산 갑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 최대 빅매치 지역구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간 광주에서 지역구 4선 고지를 넘어서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3선인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4선을 넘어설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이 지역구는 광주 지역 다른 선거구와 달리 도농 복합 선거구라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구 특성상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들이 많은데, 이 연령대의 유권자를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가 총선의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역구 역시 ‘더민주-국민의당’ 후보간 맞대결이 접착지는데, 양당의 공천이 마무리될 때까지 광산 갑의 선거구도는 상당한 출렁임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당의 경우 후보자들이 대거 물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천경쟁이라는 산과 함께 더민주와의 본선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군 공항 이전문제와 KTX 광주송정역 활성화 등 지역현안문제도 이번 총선에서 광산 갑 지역의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각 후보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지만 해법에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해결방식에 따라 지역 표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 불황 속에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느냐는 점도 이번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현재 더민주에선 임한필·허문수 예비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의사 출신 이용민,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도 출마한다.

이 이사장은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으로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200여명의 의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를 진행해온 인물이다. 또 ‘퇴움기술네트워크’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저소득층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이름	이용민	임한필	허문수	김동철	김경록	윤봉근
나이	52	44	53	61	42	58
약력	·(현) 광주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 이사장 ·(전) 광주 비정규직센터 이사장	·(현) 김대중 평화캠프 조직위 사무처장 ·(현) 광산문화 경제연구소 대표	·(전) 광주시의원 ·(전) 민주당 광주시당 민원실장	·(현) 국회의원 ·(전) 17·18대 국회의원	·(현) 국민의당 대변인 ·(전) 안철수 대선 진심캠프 기획팀장	·(전) 광주시의회 의장 ·(전) 광주시 교육위원회 의장



도농복합선거구 ... 고향자 표심이 선거 판세 좌우 더민주, 이용민 ‘영입’ ... 임한필·허문수 후보등록

국민의당, 김경록·김동철·윤봉근 당내 경선 펼 듯

어린이와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심리, 문화, 건강을 돌보고 있다.

이용민 이사장은 “마을공동체 주치의에서 국민 전체의 안전과 행복, 건강과 살림을 보듬는 국가공동체 주치의로 삶을 이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 이사장은 조만간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이사장을 광산갑에 전략공천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자는 전국단체인 사단법인 행동하는양심의 청년위원장과 김대중평화캠프조직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아서 김대중 정신 계승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 경매대 겸임교수와 광산문화경제연구소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광산 출신인 그는 이번 총선에서 어등산-황룡강-용진산을 잇는 역사문화생태지역 관광자원화와 자동차 100만대 생산을 위한 자동차산업밸리 조성 및 세계최초 무인자동차 운행 전용고속도로(송정리~나주혁신도시) 조성, 교육학원단지 설립 및 인제교육육성센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허문수 전 광주시의원도 더민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바닥을 다지고 있다.

광주시의원을 지낸 허 후보는 18대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 현역인 김동철 의원의 선대본부장을 맡아하는 등 정치판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다. 허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2014년) 맨 광산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다. 이런 탓에 허 후보는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탄탄하고 인지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도농복합 지역구라는 특성을 감안, 어르신·여성·청년·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전후비행단 이전 추진, KTX송정역 활성화, 농촌과 중소기업이 행복한 광산이라는 공약을 제시하며 지역 표심을 다지고 있다. 특히 시의원 시절 광산교육지원청 부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광산구에 교육지원청을 부활하는 안도 제시한 상태다.

◇국민의당=광산 갑에선 국민의당 예비후보는 현역인 김동철 의원과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 등 2명이 등록했다. 여기에 안철수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김경록 대변인도 조만간 출마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져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다. 지

단 17대 당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부조직 개편특별위원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순학규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3선을 거치는 동안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광주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당내 변화와 혁신을 위해 ‘민주당집권을 위한 모임’을 결성, 지난 4년간 모임을 이끌어왔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뒤 광주시당 창당 등 국민의당 창당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과 국토교통위원장 등을 연속으로 맡으면서 지역 내 자동차산업과 호남선 KTX 등 열악한 호남지역 SOC 기반 확충에도 힘썼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총선에서 정권교체와 낮은 정치 효파리를 두 가지에 대해 원칙과 소신을 갖고 임하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김 의원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4선 고지는 만만치 않다. 광주에서 국민의당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혁신공천을 강조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현역의원 물감아론이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3선을 지내면서 광산 갑 유권자들의 정치적 피로도도 상당한 상태며 각종 선거를 치르면서 공천 탈락 등으로 인해 지역구 내의 정치적 반목 세력도 규모가 커졌다.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은 국민의당에 합류한 뒤 지역 민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지역교육의의장과 서구의회 사회산업위원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호남권광역의회 의장

단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윤 전 의장은 광역·기초의원·교육위원으로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풀뿌리 3대 지방자치 분야를 완벽하게 수습하고 경험해 온 지방자치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의원 등을 지내면서 지역구에서 부대끼며 만들어낸 짜임새 있는 조직력과 인지도를 갖췄다는 점은 그의 최대 강점 중 하나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지역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임하겠다는 각오다.

그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교육도시 광주와 광산구’, ‘문화예술관광도시 광산구’, ‘생산복지도시 광산구’, ‘도농복합전원도시 광산구 만들기’를 제시했다.

하지만 윤 전 의장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회 입성은 그리 만만치 않다. 우선 현역인 김동철 의원과 당내 경선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참심함과 열정을 무기로 조만간 후보 등록을 하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 출신인 김 대변인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정대철 대표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 이후 국회보좌관과 국회정책전문위원, 민주당 대변인과 민주당 합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안철수 진심캠프 기획팀장, 안철수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실무준비단 기획보좌관, 국민의당 창준위 공보단장 등을 맡는 등 안 대표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정계에서 강직하고 합리적인 인물이란 평을 받고 있으며 전략적 마인드도 강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동철, 현역 물갈이 여론 부담 속 공천 티켓 잡을지

■ 관전 포인트

광산 갑의 관전포인트는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생존 여부다.

더민주를 탈당한 뒤 국민의당에 합류한 김 의원은 조직력을 앞세워 지역 표발을 다지고 있는데, 4선 고지를 넘어선다면 광주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김 의원은 본선에 앞서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경선을 치러야 한다.

윤 전 의장은 전정배 의원이 주도한 국민회의에 몸을 담았다가 국민의당과 통합하면서 김 의원과

경선 구도를 만든 상태다.

국민의당에선 경선을 통해 출마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경선관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부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로 이어지면서 더민주 후보와의 일대일 대결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변수가 있다.

김 의원은 예선을 통과하더라도 더민주와 또다시 본선을 치러야 한다. 일각에선 더민주가 해당 지역구에 대해 전략공천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탈당에 따라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던 당직자들과 당원들이 탈당함으로써 더

민주로선 지역위원회부터 다시 꾸려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만약 김 의원이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다면 광주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선에 대한 지역민의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변수다.

현역 물갈이에 대한 여론이 높다는 점도 김 의원의 예선 부담이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오랫동안 광산 갑을 지키며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은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65세 이상 40% ... 군비행장 이전·송정역 활성화 현안

■ 선거구 특징

광산 갑 선거구는 광주지역 다른 선거구와 달리 도농 복합 선거구라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구 특성상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들이 많은데, 이 연령대의 유권자를 어떤 식으로 공략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구의 해당 동(洞)은 송정1·2동, 동곡동, 어룡동, 운남동, 월곡1·2동, 평동, 삼도동, 분량동, 우산동, 신흥동, 도산동 등이다.

지난해 10월 31일 현재 인구는 모두 16만7535명이며 이 가운데 유권자는 13만895명이다.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40% 이상 될 것이라는 게 지역 정

치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역 특성상 노인 복지에 대한 민원이 많은 편이다. 출마자들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느냐는 점도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광산 갑 선거구의 지역현안으로 군비행장 이전과 소음문제, KTX 광주송정역 활성화 등이다. 출마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지만 해법에는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접근 방식에 따라 표심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산 갑 선거구는 18대 총선 때 갑과 을로 나뉘었다. 광산이 갑과 을로 나뉘기 이전 현재까지 김동철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신세계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법인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한양대학교)
- 경제학석사(서울대학교)
- 세무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 / 010-3608-8897